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석사학위논문

어휘 공백에 따른 영어 동사의
한국어 번역양상



2016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배 성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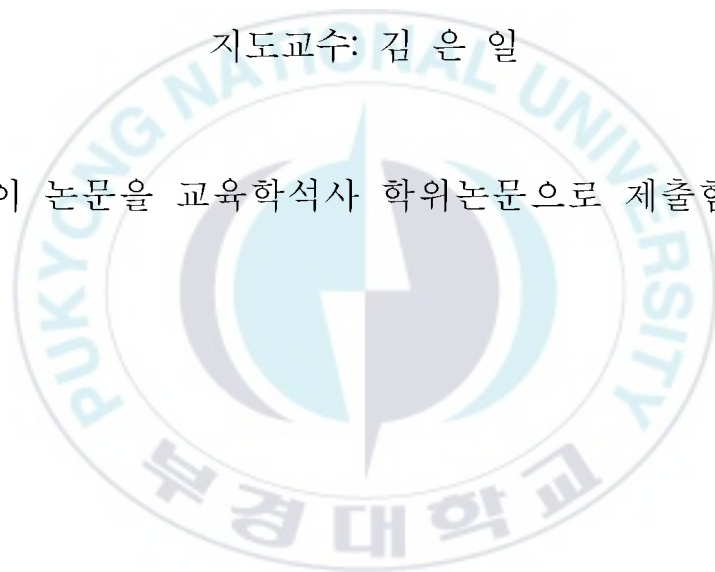


교육석사학위논문

어휘 공백에 따른 영어 동사의 한국어 번역양상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배 성 화

배성화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 년 2 월 26 일



주 심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위 원 언어학박사 John homas Stonham (인)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4
2.1 이론적 배경	4
2.1.1 어휘공백	4
2.1.2 번역유형	5
2.1.3 서술명사	7
2.2 방법론	10
III. 동사의 의미부류 및 번역유형	13
3.1 생리현상	14
3.2 몸동작 및 얼굴표정	17
3.3 언어 및 소리	22
3.4 도구사용	25
3.5 기타	26
3.5.1 한자 명사	26
3.5.2 순수 한국어 명사	27
3.5.3 새로이 생겨나거나 발생하는 현상	29
IV. 결론	33
참고문헌	35

Translation Patterns of English Verb into Korean
in the Consideration of Lexical Gap

Sung Wha Ba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translation patterns of Korean from English verb in the viewpoint of lexical gap. A single English verb is translated into a combination of noun and verb in Korean due to the lexical absence of target language. For the understanding of translation patterns, English verbs in two English literary works that are translated into noun-verb combination in Korean edition are extracted and analyzed. The result includes semantic characteristics of English verbs which is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and three of them are related to body movement. Korean translation is divided into two types: noun-centered translation and verb-centered translation.

I. 서론

영어와 한국어의 번역 텍스트를 보면, 아래의 예 (1)과 같이 단어가 품사의 변화 없이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품사에 또 다른 품사를 추가하거나 변경·삭제하지 않으면 원형의 뜻을 적절히 전달할 수 없는 동사들도 다수 존재한다.

(1) a. She looked at me.

b. 그녀가 나를 보았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 (1a)의 동사 'look'은 (1b)의 '보다'로 번역되어 영어와 한국어가 동사로 일대 일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 번역으로서, 출발언어(source language)와 도착언어(target language)의 어휘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보자.

(2) a. Some people sighed.

b. 몇 명은 한숨을 쉬었다.

(2a)의 동사 'sigh'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하나의 동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숨'과 '쉬다'라는 '명사+동사' 결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발언어의 동사 'sigh'와 동일한 품사의 도착언어 어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어휘공백(lexical gap)이 발생함에 따라 '쉬다'라는 동사 의미만으로는 'sigh'의 의미를 전혀 전달할 수 없기에 '한숨을'이라는 목적어 역할의

명사부가 추가되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옮길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3) a. She bent forward to pick up the newspaper.

b. 그녀는 신문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굽혔다.

(3a)의 동사 ‘bend’ 역시 (2b)와 마찬가지로 (3b)에서 명사와 동사인 ‘몸’과 ‘굽히다’의 결합 형태로 번역되었는데, 이 또한 영어 동사 ‘bend’가 한국어 동사 ‘굽히다’ 만으로는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2)의 예와 다른 점은, 같은 품사인 동사 ‘굽히다’가 영어 동사 ‘bend’의 원래 의미를 일부 전달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명사 ‘몸’이 없다면 신체의 어떤 부위를 굽혔는지 알 수 없으므로 문맥에 따라 ‘굽히다’의 대상이 되는 ‘몸’이 목적어로 추가되어 영어 동사의 원래 뜻을 혼란 없이 전달하였다.

위의 예들에서 본 바와 같이, 영어 동사 중에는 동일한 품사인 동사로 번역하고자 할 경우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동사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 단어의 동사가 아닌 ‘명사+동사’의 결합 형태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 번역 유형에는 (2)처럼 한국어 동사만으로는 영어 동사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사가 추가된 경우와 (3)과 같이 영어 동사가 한국어 동사에 미쳐 전달할 수 없는 문맥적 의미가 한국어 명사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의미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영어 동사들에서 이러한 ‘명사+동사’ 결합형 번역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둘째, 여기에서 발견되는 번역 유형의 문법적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동사에서 ‘명사+동사’ 결합형

으로의 번역이 발생하는 이유인 ‘어휘공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로 인해 발견되는 ‘명사+동사’로의 번역 유형 두 가지를 정의하고, 이들 유형에 관한 설명과 연관된 개념인 ‘서술명사’에 관해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방법론을 짚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수집한 번역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먼저 어휘공백 현상을 가지는 영어 동사를 의미 부류에 따라 분류하며, 의미부류 내에서도 번역 유형에 따라 그 문법적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자료 분석 및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정의하고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2.1 이론적 배경

2.1.1 어휘 공백

어휘공백(lexical gap)이란, “특정 언어를 쓰는 사회에 특정 어휘로 나타낼 개념이 아직 없어서 나타나지 않았거나, 특정언어가 어휘를 조직하는 짜임새 때문에 특정 개념을 단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¹⁾을 말한다.

이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휘가 영어의 자동사에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사 ‘spit’이 사용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명사인 ‘침’과 동사인 ‘뱉다’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She spat in his face’는 ‘그녀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로 번역된다. 물론 ‘She spat the

1)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에서는 이 같은 특성을 가지는 어휘, 즉 어떤 언어에 없는 어휘를 ‘공백어휘’라 정의한다. 예를 들면 일본어에는 한국어 ‘반갑다’에 해당하는 하나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만나서 기쁘다’와 같이 풀어써야 하는데, 이때 한국어 ‘반갑다’가 공백어휘가 되는 것이다. 이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어휘공백과 동일한 개념으로, 어휘공백을 가지는 어휘가 공백어휘라 볼 수 있다.

food'같이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사가 서술어의 의미만을 가지며 '그녀는 음식을 뱉었다'로 번역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자동사의 경우 '침을 뱉다' 또는 '침을 내뱉다' 이외의 번역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사 'spit'의 의미에는 '뱉다'는 동사성 외에도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침'이라는 명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바, 영어에서 의도하는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국어, 즉 같은 품사의 단일 어휘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휘 공백을 내재한 영어 동사는 한국어에서 '명사+동사' 결합형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다음 소절에서 이러한 번역에서 발견되는 유형들에 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2.1.2 번역 유형

어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번역 시 품사나 어휘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본 연구의 영어 자동사에서는 '명사+동사' 결합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번역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영어 동사의 뜻이 한국어 명사에 주로 전이되는 것과 둘째, 영어 동사의 뜻이 한국어 동사로 옮겨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김은일(2015)은 영한번역에서 태의 변조가 발생하는 요인의 하나로 어휘공백으로 인한 탈어휘화를 들었다. 이는 어휘공백이 생긴 영어동사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영어 동사의 주된 의미를 지닌 명사'와 '탈어휘화된 동사'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4) a. The boy was rewarded with a generous discount on his purchase.

- b. 소년은 그 보상으로 구매품에 대해 많은 할인 혜택을 받았다. (RD 102: 98-99)

(김은일 2015: 73)

위 예에서 영어 동사 ‘reward’의 주요 의미는 명사인 ‘혜택’으로 옮겨졌으며, 따라서 동사인 ‘받았다’ 만으로는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명사 ‘혜택’이 영어 동사가 서술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받았다’는 그러한 명사를 보충하는 역할의 탈어휘화된 동사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서론의 예 (2)와도 동일한 유형으로, ‘sigh’가 ‘한숨을 쉬다’로 번역되었을 때 그 주요 의미는 ‘한숨’으로 전이되었으며, ‘쉬다’는 명사에 따른 서술의 역할을 할 뿐 원래 동사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 동사의 의미가 한국어의 명사 쪽에 주로 전달된 경우 이를 첫 번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영어 동사의 주된 의미가 한국어의 동사로 옮겨진 것이다. 서론의 예 (3)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 (3) a. She bent forward to pick up the newspaper.

- b. 그녀는 신문을 집으려고 몸을 앞으로 굽혔다.

동사인 ‘bent’가 ‘몸을 굽혔다’로 번역된 것은 역시 명사와 동사가 결합된 것으로, 앞서의 예와 비교해보았을 때 형태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 경우 영어 동사의 주요 의미는 술어 기능을 하는 일반 동사인 ‘굽혔다’로 전이되었음을 볼 수 있다. 목적어형 명사 ‘몸’은 동사의 주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술어동사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을 뿐이라는 데서 차이

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2b)의 ‘한숨을 쉬다’나 (4b)의 ‘혜택을 받다’와는 반대되는 유형으로, 한국어의 동사 ‘굽혔다’만으로 원래 영어동사의 의미 대부분을 전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명사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유형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 명사는 영어 동사의 주요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주가 되는 뒤의 서술동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영어 동사가 한국어의 ‘명사+동사’ 형태로 번역될 때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두 가지 번역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영어 동사의 의미가 주로 한국어의 명사로 전이되어 번역된 유형을 ‘제1유형’으로, 영어 동사의 의미가 주로 한국어 동사, 즉 서술어로 전이된 유형을 ‘제2유형’이라고 표기하기로 하겠다. 또한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을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술명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1.3 서술명사

앞서 번역 유형을 제1유형과 제2유형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뒤를 이을 3장에서는 이러한 번역 유형에서 발견되는 특성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데, 설명에 앞서 미리 주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서술명사에 관한 것이다. 이는 번역 유형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특히 제1유형의 번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술명사²⁾는 행위, 상태, 관계,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의 의미가 명사 범주로 나타난 표현이다(홍재성 1999). 그러나 ‘기침’, ‘하품’과 같이 직관적으

2) ‘서술명사’는 ‘술어명사’ 혹은 ‘동사적 명사’(Verbal Noun)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로 서술명사일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명사가 있는 반면, ‘소리’나 ‘벌’과 같이 그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술명사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채희락(1996)은 명사 서술성의 존재 여부는 그 명사가 자체 논항(inherent argument)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며 그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직 경동사 ‘-하다’와 결합한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기준과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제외시켰다.

강범모(2000)는 서술명사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 (5) a. ‘-케, -토록’ 결합 가능
- b. ‘하다’ 기능 동사 결합
- c. 명사문 가능
- d. ‘중’ 구문
- e. 언제나 ‘-이다’

또한 이병규(2005)는 서술명사의 특성으로 다음의 기준을 제시했다.³⁾

- (6) a. 상명사⁴⁾ ‘(도)중’, ‘순간’, ‘속’ 가운데 적어도 하나와 통합 가능
- b. 상동사⁵⁾ ‘시작되다, 지속(계속)되다, 끝나다’ 가운데 적어도 하나와

3) 본 소절의 목적은 서술명사에 대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지 서술명사 판단 기준의 타당성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기준들을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에 관해서는 각 논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4) ‘상명사’는 어휘 의미가 오로지 시간적인 분포 양상만을 나타내는 명사를 이른다(이병규 2005:65).

5) ‘상동사’ 역시 어휘 의미가 오로지 시간적인 분포 양상만을 나타내는 동사를 지칭한다(이병규 2005:67).

통합 가능

- c. 지시관형사나 수 관형사 결합 불가능
- d. 복수 지시표지 ‘-들’ 결합 불가능
- e. 보조사 ‘마다’와 결합 불가능

위에서 보았듯 서술명사를 정의함에 있어서 강범모(2000)와 이병규(2005) 두 연구자의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 이는 서술명사를 정의함에 있어서 완전히 확립된 기준은 아직 없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자의 기준에 의거하여 서술명사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임의로 설정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서술명사의 기준을 제안하여 정의함으로써 제1유형의 번역 중 명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범모 스스로도 서술명사를 특징지을 수 있는 완벽한 통사적 기준이 없고 위의 기준이 다소 불완전함을 인정한 바 있듯이(2000:18), 이 모든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명사만을 서술명사라고 하기에는 그 조건이 광범위하고 가변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자의 기준 중 중복되는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성 높은 기준설정이라고 보았다. 위의 서술명사에 대한 분류 기준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5d)에서 말하는 ‘중’과의 결합 가능성은 (6a)가 명시하는 기준인 ‘(도)중’, ‘순간’, ‘속’의 일부이다. 따라서 (5d)와 (6a)의 기준에서 공통적인 ‘(도)중’과 통합이 가능한 명사를 서술명사라 정의하기로 한다.⁶⁾

6) ‘기침을 하다’에서 ‘하다’와 같이, 서술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경동사이다. Jespersen(1954)은 구문의 서술적인 의미가 문법적 서술어인 have/give/take 등에서 나오기보다는 ‘사건(event)’이나 ‘행위(action)’를 지칭하는 행위명사에서 나올 경우 이를 “light verb”(경동사)로 명명하였으며, Hale and Keyser(1991)은 이를 “의미론적으로 결합이 있는 동사”라 정의하였다. 나아가 채희락(1997)은 경동사를 “동사성 서술명사와 결합하여 완전한 서술어가 되는 동사”로 정의하며 대표적인 경동사로 ‘-하다’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앞 소절에서 제1유형과 제2유형 번역으로 각각 분류했던 예 (2)와 (3)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7) 민이는 한숨 중

(8) *민이는 몸 중

예 (2)의 동사 ‘sigh’를 번역한 한국어 명사 ‘한숨’은 (7)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과의 결합이 가능한 명사로 서술명사라 볼 수 있으며, (3)의 동사 ‘bend’의 번역 중 한국어 명사부분인 ‘몸’은 (8)과 같이 ‘중’과의 결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서술명사라 할 수 없는 일반동사이다.

본 절에서 이와 같이 서술명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의 번역 유형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다.

2.2 방법론

어휘공백을 가진 영어동사가 한국어에서 어떤 형태로 번역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본 연구는 영어 원본과 그 번역본을 비교하였을 때 명시적인 번역 차이를 보이는 자료들을 추출하였다. 보다 전문적인 번역가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고자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영어 문학책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⁷⁾,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Tuesdays with Morrie)⁸⁾과 각각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검토하

이러한 정의들을 놓고 보았을 때, 경동사란 원래의 서술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그와 결합되는 서술명사를 뒷받침 하는 보조적 역할의 동사 형태이다.

7) Joan K. Rowling , 1999. 김혜원 역. 이하 ‘Harry’로 약함.

였다. 글의 분위기와 번역가에 따라 문체와 단어 사용이 다르므로 다양성과 번역의 의미 정확성을 감안하여 복수의 작품을 사용하였으며, 각 원서의 첫 장에서부터 60개씩 총 120개의 동사를 추출하였다. 영어 원문을 한국어 번역본과 대조하였을 때 동사와 동사의 1:1 치환이 아닌 품사의 변화가 발생하는 영어 동사, 그 중에서도 한국어 번역이 ‘명사+동사’의 결합 형태를 띠는 것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명확히 해 놓아야 하는 것은 한국어의 ‘명사+동사’ 결합에 있어서 조사의 수용 여부이다. 예를 들면 ‘출근을 하다’와 ‘출근하다’ 같이 조사를 생략해도 의미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를 ‘명사+동사’ 결합형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동사’로서 형태적으로 다른 어휘로 보아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9) a. Jason studied in his room.
 b. 제이슨은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했다.
 b'. 제이슨은 자신의 방에서 공부 했다.

(9a)의 동사 ‘study’는 (9b)에서 ‘공부를 하다’로, (9b')에서 ‘공부하다’로 번역되었다. 몇 연구에서는 주격조사 ‘-이’와 대격조사 ‘-을’은 흔히 생략될 수 있으며(한영균 1997) 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환원이 가능하므로(고광주 2002) 화용론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9b)와 (9b')는 의미적으로 동일하다 여겨질 수는 있을지라도 형태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공부’를 명사로, ‘하다’를 동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9b)의 ‘공부’와 ‘하다’는 ‘명사+동사’ 결합형으로 하나의 품사인 ‘study’가 두 개의 품사가 된

8) Mitch Albom, 2002. 공경희 역. 이하 ‘Morrie’로 약함.

것이며, 이는 조사인 ‘를’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9b')의 ‘공부하다’는 국립국어원(1999)에서 동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품사를 구분하는 조사를 가지지도 않으므로 동사 ‘study’와 일대일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둘 이상의 단위가 결합하였음을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법장치는 조사이다. 또한 ‘고개를 끄덕이다’나 ‘눈을 깜빡이다’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결합형도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의 영어 동사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두 개의 품사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조사가 포함된 것만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정의하고 유형을 미리 분류하여 다음 장의 내용 이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휘 공백을 가지는 영어 동사들을 번역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두 가지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중 첫 번째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서술명사의 개념이 주요하게 활용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과 정의가 병행되었다. 또한 연구 방법 및 범위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자료의 동사들을 의미부류별로 분류하여 그 번역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동사의 의미부류 및 번역유형

본 장에서는 어휘공백으로 인해 영한 번역에서 ‘명사+동사’로의 품사 변형이 발생한 영어 동사를 의미부류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앞서 추출한 120개의 영어동사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품사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그 중 ‘명사+동사’ 결합형으로 번역된 것은 78개였고 나머지 42개는 ‘부사+동사’ 결합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사에서 ‘명사+동사’ 결합형으로 번역되는 동사만을 다루고자 하므로, 78개의 동사가 연구 대상이 된다. 이 중 의역으로 인해 원래의 의미에서 지나치게 떨어진 9개 동사는 제외시켰다.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69개의 동사가 분석 대상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동사의 의미별 부류와 한국어 번역유형에 따른 구분 내용을 먼저 표로 작성하였다.

9) 분석에서 제외된 동사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i) a. Morrie began.

b. 선생님이 말문을 열었다.

(ii) a. Morrie honked loudly into the tissue.

b. 모리 선생님은 휴지에 코를 힘껏 풀었다.

(i)의 ‘말문을 열었다’처럼 동사의 의도는 ‘이야기를 시작하다’이지만 관용적 표현으로 번역되어 원래 동사를 짐작할 수 없는 경우나 (ii)의 ‘코를 풀었다’와 같이 사전에 없는 표현으로 번역된 경우를 포함한 9개이다.

표1. 어휘공백을 가지는 영어동사

의미부류		생리현상	몸동작 /얼굴 표정	언어 및 소리	도구사 용	기타	계
번 역 유 형	제1유형	9	9	6	2	15	41 (60%)
	제2유형	8	13	4	-	3	28 (40%)
계		17 (25%)	22 (32%)	10 (14%)	2 (3%)	18 (26%)	69 (100%)

동사의 의미는 크게 ‘생리현상’, ‘몸동작 및 얼굴표정’, ‘언어 및 소리’, ‘도구 사용’, ‘기타’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의미부류 내에서 다시 제1 유형과 제2유형의 두 가지 번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생리현상

자발적이지 않은 반사적인 신체 현상들을 뜻하는 영어동사이다. 총 69개 중 17개로 2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구분된다.

A. 제1유형

제1유형은 9개이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0) a. [...] ¹⁰, he was coughing more than usual, [...]. (Morrie, 102)

b. [...], 선생님은 평소보다 훨씬 기침을 많이 했다. (모리, 136)

(11) a. [...], so Morrie began to urinate into a large beaker. (Morrie, 11)

b. [...], 커다란 소변기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모리, 26)

(10a)의 동사 ‘cough’는 (10b)에서 ‘기침을 하다’로 번역되었으며, (11a)의 ‘urinate’는 (11b)에서 ‘소변을 보다’로 번역되어, 두 동사 모두 제1유형의 정의에 맞게 주요 의미가 한국어의 명사인 ‘기침’과 ‘소변’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사를 서술명사의 기준에 적용시켜 보면 ‘지혜는 기침 중’, ‘지혜는 소변 중’과 같이 ‘(도)중’과의 결합 가능성을 충족시키므로, 이들 명사는 서술명사이다. 이 외에도 생리현상의 제1유형에서는 ‘sigh’, ‘moan’, ‘gag’ 등 주로 호흡기와 관련된 비자발적인 동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의 번역인 ‘한숨을 쉬다’, ‘신음을 토해내다’, ‘구역질을 하다’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한숨’, ‘신음’, ‘구역질’ 역시 모두 ‘(도)중’과 결합 가능한 서술명사로, 결국 제1유형의 동사 9개의 한국어 명사는 모두 서술명사로 판단되었다.

제1유형은 영어 동사의 의미가 협소한 것이 관찰된다. 다시 말해, 광범위하지 않은 특징적인 생리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그 의미가 전이된 한국어 명사 역시 특정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서술명사임을 알 수 있다. (10a)의 cough는 (10b)에서 ‘기침을 하다’인 ‘명사+동사’ 형태로 번역되었지만, 그 중 서술명사인 ‘기침’만 보아도 그 동사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뒤따라오는 ‘하다’ 동사는 형태적 구성을 위한 경동사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1b)에서도 동일하다. ‘소변을 보다’에서 그 어휘적 의미는 ‘소변’만으로도 알 수 있으며 ‘보다’는 ‘see’ 또는 ‘watch’의 의미가 아닌

10)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임.

앞선 명사 ‘소변’의 특성상 함께 쓰이는 언어의 유형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 제2유형

영어 동사의 의미가 주로 한국어의 동사부분에 전이된 제2유형은 17개 중 8개이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 (12) a. Dudley snored but Harry stayed awake, [...]. (Harry, 35)
b. 두들리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들었지만, 해리는 자지 않고 [...]. (해리, 68)
- (13) a. [...], said Harry, panting a bit as he ran to keep up, [...]. (Harry, 52)
b. [...] 해리가 쫓아가느라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해리, 100)

(12a)의 ‘snore’은 ‘코를 골다’로 번역되었는데, ‘코’만으로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반면 ‘골다’ 동사를 보면 그 목적어가 ‘코’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한국어 동사에 더 비중 있는 의미가 전이되었으며 그 앞의 명사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충적 역할을 하는 언어이다. (13a)의 ‘pant’ 역시 (13b)의 ‘숨을 헐떡이다’ 중 동사 ‘헐떡이다’에 영어 동사의 행위성이 반영되었으며, 그 목적어가 ‘숨’이라 표기된 것은 문맥의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한국어 동사들은 대부분 그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뿐 명사가 없더라도 대부분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코’와 ‘숨’은 서술명사라 볼 수 없다. ‘민희가 숨 중’이 성립되

지 않듯이, ‘민희는 코 중’¹¹⁾ 역시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이 보충어 역할을 하는 한국어 명사는 서술명사가 아닌 동사의 대상이 되는 신체 일부이거나 중립적인 일반명사라 볼 수 있다.

위의 예 외에 ‘snort’, ‘sniffle’과 같이 코의 활동과 관련된 동사나 ‘inhale’, ‘exhale’ 등 숨과 관련된 어휘가 있었으며, ‘콧물을 들이켜다’, ‘코를 훌쩍이다’의 ‘콧물’이나 ‘코’, 그리고 ‘숨을 내쉬다’, ‘숨을 들이쉬다’의 ‘숨’ 역시 ‘(도)중’과 결합할 수 없는 일반명사이다.

비자발적 신체현상인 ‘생리현상’으로 분류되는 동사의 제1유형은 주로 호흡기의 활동과 배변에 관련된 의미였으며, 제2유형은 주로 코의 활동과 숨에 관련된 동사였다. 이러한 영어 동사의 한국어 번역은 유형에 따라 대비되는 특징을 보였다. 제1유형의 한국어 명사는 모두 특정한 동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서술명사로, 뒤의 동사는 보조적 역할을 했다. 제2유형은 이와 반대로 한국어 동사만으로 주요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앞의 명사가 목적어로서 문맥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3.2 몸동작 및 얼굴표정

신체 일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동일한

11) ‘코를 하다’가 ‘코를 성형하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코 중’도 사용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코’를 서술명사로 분류할 경우 ‘밥 중’, ‘나무 중’, ‘떡 중’도 사용 가능하므로 ‘밥’, ‘나무’, ‘떡’과 같은 실체명사도 서술명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의 2장에서도 정의한 바 있듯이 서술명사는 행위, 상태, 관계, 사건의 의미를 가진 명사를 의미하므로, ‘코를 하다’는 ‘서술명사+경동사’가 아닌 ‘하다’에 그 주요 의미가 있는 ‘일반명사+일반동사’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전제 하에 몸동작과 표정을 함께 분류했다. 69개 동사 중 22개(32%)로 드러났으며, 역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 제1유형

앞선 ‘생리현상’과 마찬가지로 제1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9개의 동사이다. 즉, 한국어의 명사가 구체적인 동작을 내포한 서술명사의 조건에 부합하며 경동사가 그 뒤를 따른다.

- (14) a. Hagrid yawned loudly, sat up and stretched. (Harry, 50)
b. 해그리드는 큰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한 뒤, 일어나 앉아 기지개를
쫘다. (해리, 96)
- (15) a. A tiny man [...] had bowed to him [...]. (Harry, 27)
b. [...] 자그마한 남자가 해리에게 인사를 했다. (해리, 52)

몸동작이니만큼 다양한 종류의 움직임이 있었다. 먼저 (14a)의 ‘stretch’와 (15a)의 ‘bow’는 (14b)에서 ‘기지개를 쫘다’, (15b)에서 ‘인사를 하다’로 번역되었으며, 한국어 명사인 ‘기지개’와 ‘인사’는 ‘아기가 기지개 중’, ‘아이가 인사 중’처럼 서술명사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동사 외에도 ‘motion’, ‘gesture’와 같이 특정 신체부위를 스스로 움직이는 동작들이 있었으며, 이를 번역한 ‘몸짓을 하다’, ‘제스처를 취하다’의 명사인 ‘몸짓’과 ‘제스처’ 역시 ‘(도)중’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서술명사의 기준에 부합한다. 이러한 몸동작을 의미하는 서술명사들을 보충하는 ‘쫘다’, ‘하다’, ‘취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서술적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앞선 명사들을 위한 경동사로, ‘기지개를 쫘다’와 ‘제스처를 취하다’에서 ‘쫘다’와 ‘취하다’는 특정

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개’와 ‘제스처’에 연관된 언어 동사라고 할 수 있다.

(16) a. He turned to smile at the tabby, [...]. (Harry, 13)

b. 그가 고개를 돌려 얼룩 고양이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는 [...].
(해리, 23)

(16a)의 ‘smile’은 ‘미소를 짓다’로 번역되었는데, 명사 ‘미소’는 ‘그가 미소 중’에서 알 수 있듯 서술명사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표정을 나타내는 동사로는 ‘wink’와 ‘sniff’가 있었다. ‘윙크를 하다’와 ‘콧방귀를 뀌다’로 각각 번역된 두 동사의 한국어 명사 ‘윙크’와 ‘콧방귀’ 역시 ‘해리는 윙크 중’, ‘해리가 콧방귀 중’ 처럼 서술명사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또한 예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스처’, ‘윙크’ 등 흔히 쓰이는 영어가 동사가 경동사 ‘하다’와 결합하여 그대로 한국어 서술명사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B. 제2유형

역시 생리현상의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영어 동사의 주된 의미는 한국어 서술어로 전이되었으며, 22개 중 13개이다.

(17) a. Harry sighed and stretched out on the bed. (Harry, 32)

b. 해리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해리, 62)

(18) a. A wild-looking old woman [...] had waved merrily at him [...].
(Harry, 27)

b. [...]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노파가 해리에게 유쾌하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었다. (해리, 52)

(19) a. [...], and I swallowed [...]. (Morrie, 28)

b. [...], 난 침을 꿀꺽 삼켰다. [...] (모리, 47)

제2유형의 몸동작 역시 다양한 움직임들이 보였다. (17a)의 ‘stretch’는 (17b)에서 ‘다리를 뻗다’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bend’의 ‘허리를 굽히다’나 ‘lean’의 ‘몸을 숙이다’와 함께 관절의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18a)의 ‘wave’는 ‘손을 흔들다’로 번역되어 왕복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데, 유사한 종류로는 ‘nod’와 ‘blink’로 ‘고개를 끄덕이다’와 ‘눈을 깜빡이다’가 있다. 또한 (19a)의 ‘swallow’가 ‘침을 삼키다’로 번역된 것처럼 신체 내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었다. (17b)의 명사 ‘다리’와 (18b)의 ‘손’, (19b)의 ‘침’ 이 모두 서술명사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다리 중’이나 ‘그들은 손 중’, ‘내 친구는 침 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명사들인 ‘허리’, ‘몸’, ‘고개’, ‘눈’ 등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제2유형의 한국어 동사 앞에는 그 대상이 되는 신체 일부나 일반명사가 문맥에 맞게 결합되었으며, 서술명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제2유형의 동사는 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이지만 그 대상이 한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문맥의 변화에 따라서 (17a)의 ‘stretch’는 ‘팔을 뻗다’, ‘몸을 뻗다’로도, (19a)의 ‘swallow’는 ‘물을 삼키다’, ‘음식을 삼키다’로도 번역될 수 있다. 즉, 다양한 목적어 연어의 쓰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보충어 역할을 하는 앞의 명사가 없을 경우 동사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제1유형과 제2유형 모두 신체의 일부를 사용한 움직임이나 표정을 나타

내는 동사들이었으며, 특히 제2유형에서 관절운동과 왕복운동 등 더욱 다양한 양상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제1유형은 앞 절의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서술명사와 경동사가 결합되어 서술명사만으로도 영어 동사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제2유형 또한 한국어 동사의 움직임이 영어 동사 의미를 나타내며 명사는 이를 문맥적으로 보충한다는 점에서 앞 절의 제2유형과 동일한 특성을 가졌다. 그러나 한국어 동사 앞의 목적어 명사가 제한적이어서 명사 없이도 동사의 뜻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생리현상’의 동사들과는 다르게, 문맥에 따라 앞의 목적어 명사를 다양하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가 없을 경우 뜻을 명확하게 알기 힘든 동사가 많았다.

앞서의 의미부류 ‘생리현상’과 ‘몸동작 및 얼굴표정’은 비자발적·자발적이라는 차이를 가지기는 하지만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부류로 묶을 수도 있다. 이들의 제1유형 영어 동사들은 대부분 형태변화 없이 명사로도 사용되는 품사 전환(conversion) 현상이 관찰된다.¹²⁾ 이는 번역 유형, 즉 동사의 의미가 한국어의 서술명사로 전이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영어 동사 어휘가 명사 어휘로 사용될 때의 번역이 한국어 서술명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선 (10a) 동사 ‘cough’의 명사 의미는 ‘기침’이며, 이는 (10b)에서 ‘기침을 하다’로 번역되었다. 이는 제2유형과 대조되는데, 제2유형 동사 중 명사 어휘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동사가 있어도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하나의 서술명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12a)의 동사 ‘snore’는 명사로도 쓰이며 그 의미는 ‘코 고는 소리’이지만, 이를 의미하는 한국어 명사는 없다. 따라서 이는 ‘코골기를 하다’ 따위로 번역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18a)의 동사 ‘wave’의 명사 뜻은 ‘흔

12) 유일한 예외는 ‘urinate’로, 명사형은 ‘urination’이다. 이는 다른 동사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어휘로, 어휘 레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들기'이지만, '흔들기를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14)과 (17)의 예를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두 예의 공통된 영어동사 'stretch'라는 어휘가 가지는 명사 의미 중에는 '기지개'가 있으며, 동사로 쓰일 때의 주요 의미는 '뻗다'이다. 따라서 이것이 제1유형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14b)와 같이 그 명사 의미가 한국어 서술명사로 옮겨져 '기지개를 켜다'로 번역되었고, 제2유형에서는 (17b)처럼 동사에 전이되어 '다리를 뻗다'로 옮겨졌다. 이 같은 구분은 어휘의 공백에 따른 번역 유형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언어 및 소리

입을 통해 언어 혹은 소리로써 의사를 전달하는 청각자료를 제시하는 의미부류로, 전체 69개 동사 중 10개(14%)이다. 자발적인 의사표현과 동시에 놀람, 공포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의사표현도 나타난다.

A. 제1유형

10개 중 6개가 제1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0) a. [...] until I scream in pain and let him go. (Morrie, 96)

b. [...] 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을 때까지 [...]. (모리, 129)

(21) a. [...], I mentioned this to Morrie. (Morrie, 52)

b. [...] 나는 선생님께 이야기를 꺼냈다. (모리, 75)

(20a)의 ‘scream’은 ‘비명을 지르다’로, (21a)의 ‘mention’은 ‘이야기를 꺼내다’로 번역되었는데, 앞선 절의 제1유형들처럼 한국어 명사 ‘비명’과 ‘이야기’는 ‘그 가수가 비명 중’, ‘선생님은 이야기 중’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준을 만족시키는 서술명사이다. (20a)의 ‘scream’과 같이 소리를 사용한 의사 전달 동사는 ‘boo’와 ‘thunder’가 있었으며 이는 ‘야유를 보내다’, ‘고함을 지르다’로 번역되었다. (21a)의 ‘mention’처럼 언어를 사용한 의사 전달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mention’과 ‘complain’으로, ‘이야기를 털어놓다’, ‘불평을 늘어놓다’로 번역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어 명사인 ‘야유’, ‘고함’, ‘불평’ 역시 ‘(도)중’과 결합이 가능한 서술명사임을 알 수 있다.

B. 제2유형

제2유형은 독특하게 각기 다른 네 개의 영어동사가 동일하게 번역되었는데, 모두 언어가 아닌 소리에 의한 의사표현이다.

(22) a. He [...] shouted a bit more. (Harry, 9)

b. 그는 [...] 약간 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해리, 15)

(23) a. He'd screamed, [...]. (Harry, 33)

b. 두들리는 소리도 질러보고, [...]. (해리, 63)

위 (22a)와 (23a)의 두 동사 ‘shout’와 ‘scream’외에도 ‘roar’과 ‘yell’ 모두 ‘소리를 지르다’로 번역되었는데, 모든 영어동사는 유의어 범주에 속한다. 이 동사들을 제2유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한국어 명사 ‘소리’에는 이 영어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 동사

가 가지는 주요한 의미는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큰 소리’ ‘깊은 소리’ ‘화난 소리’ ‘분노한 소리’ 등 소리의 여러 가지 외연적 특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종류의 소리를 내는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한국어 동사 ‘지르다’¹³⁾의 의미에 가깝다. ‘희연이는 소리 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¹⁴⁾으로 ‘소리’가 서술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희연이는 큰소리 중’, ‘희연이는 잔소리 중’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사 ‘소리’가 특성이 내포되지 않은 일반명사로서 동사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는 앞 절에서 서술한 바 있는 번역특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14)와 (17)의 ‘stretch’와 같이, (20)과 (23)에서도 동일한 동사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어휘 ‘scream’은 ‘(공포나 분노에 의해) 소리치다’는 동사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명’이라는 명사 어휘로도 사용된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비명’은 “일이 매우 위급하거나 몹시 두려움을 느낄 때 지르는 외마디 소리”라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제1유형인 (20b)의 경우 서술명사인 ‘비명’에 ‘scream’의 온전한 의미가 들어가 있으며 ‘지르다’는 그와 함께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경동사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제2유형인 (23b)에서 번역된 한국어 동사 ‘지르다’는 ‘공포나 분노에 의해’라는 의미가 생략된 동사의 일반적 사용으로서 영어 동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인 ‘소리’는 보충적으로 명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언어와 소리에 관련된 동사는 동일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제2유형에서는 소리를 사용한 동사만 발견되었다. 제1유형의 한국어 명사는 모두 서술명사로 판단되며, 따라서 뒤를 잇는 동사가 제2유형에서도 발

13)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이 동사를 “목청을 높여 소리를 크게 내다”로 정의하고 있다.

14) ‘판소리’라는 의미로서의 ‘소리’는 ‘소리 중’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어 동사 ‘scream’이나 ‘yell’의 번역으로서의 ‘소리’와 의미하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없다.

견되는 ‘지르다’와 동일한 어휘라 할지라도 제1유형의 ‘지르다’는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서술명사 ‘비명’이나 ‘고함’을 따르는 동사 연어이다. 반면에 제2유형의 ‘소리를 지르다’에서 ‘지르다’는 영어 동사가 가진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일반 동사로, 명사 ‘소리’는 서술명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반명사이자 ‘지르다’의 목적어 연어라 할 수 있다.

3.4 도구 사용

도구를 사용한 동사를 나타내며, 69개 중 두 개(3%)밖에 관찰되지 않았지만 모두 제1유형으로 번역되었다.

- (24) a. [...], and people fanned themselves and wiped sweat angrily [...]. (Morrie, 66)
 b. [...], 사람들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 땀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모리, 93)
- (25) a. He stayed at home and nailed up the letter-box. (Harry, 34)
 b. 그는 집에서 우편함에 못질을 했다. (해리, 65)

(24a)와 (25a)의 영어 동사 ‘fan’과 ‘nail’는 도구 명사가 동사로 품사전환된 것으로, 한국어로 번역될 때 역시 도구명사가 서술명사화 된 ‘부채질’과 ‘못질’이 가장 일반적인 경동사인 ‘-하다’와 결합되어 ‘부채질을 하다’와 ‘못질을 하다’로 번역되었다. 이는 앞서 ‘한숨을 쉬다’나 ‘기지개를 켜다’와 같이 명사인 ‘한숨’과 ‘기지개’ 자체로 서술성을 내포하고 있는 서술명사들과

는 다르게 ‘부채’와 ‘못’이라는 일반명사에 ‘-질’이 결합하여 ‘부채질’과 ‘못질’이 됨으로써 새로운 동사성을 가지게 된 서술명사이며, ‘(도)중’이라는 기준을 굳이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서술명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유형의 번역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3.5 기타

의미적으로 하나의 범주로 묶기에는 어려운 영어 동사들로, 총 69개 중 18개(26%)가 관찰되었다.

3.5.1 한자 명사

일관적인 의미부류를 발견할 수 없으나 번역된 한국어 명사가 모두 한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8개 중 9개(13%)이다. 남명애(2013)는 한국어 한자어 명사에 동작성 서술명사가 많으며, 대부분 2음절어이고, 조어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었다.

- (26) a. A postcard from [...], who was holidaying on the Isle of Wight, [...]. (Harry, 30)
- b. 화이트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 에게서 온 우편엽서와, [...]. (해리, 57)

동사들은 모두 제1유형으로 번역되어 영어 동사의 의미가 그 한국어 한자

어 명사에 함축되어 있는데, (26a)의 ‘holiday’가 대표적인 제1유형의 특징을 보이며 ‘휴가를 보내다’와 같이 서술명사와 경동사의 결합 형태로 번역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어 한자어 서술명사를 포함하여 ‘주사를 주다’나 ‘실패를 맞보다’로 번역되는 ‘inject’, ‘fail’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한자어 명사가 모두 서술명사인 것은 아니다.

(27) a. We think we don't deserve love, [...]. (Morrie, 52)

b. 우리 모두는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모리, 76)

(27a)의 ‘deserve’는 ‘자격이 있다’로 번역되었는데, 이때의 명사 ‘자격’을 비롯하여 ‘punish’, ‘care’에서 비롯된 ‘벌’, ‘신경’과 같은 한국어 한자어 명사들은, ‘벌을 주다’, ‘신경을 쓰다’와 같이 제1유형으로 번역되기는 하였으나 서술명사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감독관이 자격 중’, ‘아이가 벌 중’, ‘수험생이 신경 중’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동사 ‘주다’, ‘쓰다’를 제거할 경우 명사 ‘벌’과 ‘신경’만으로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서의 제1유형들과는 다르게 한국어 동사가 의미적으로 가법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한자어 명사+동사’ 결합이라는 이러한 번역 유형은, 제1유형으로 번역되었다는 점, 즉 한국어 명사에 영어 동사의 주요한 의미가 전이되었다는 특성만을 유지하고 있다.

3.5.2 순수 한국어 명사

역시 일관적인 의미부류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번역된 한국어 명사부가

모두 순수한 한국어인 경우로, 18개 중 총 5개(7%) 동사이다.

(28) a. A wild-looking old woman dressed all in green [...]. (Harry, 27)

b. [...] 완전히 초록색 옷을 입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노파가 [...].
(헤리, 52)

(29) a. [...], I relax. (Morrie, 30)

b. [...] 항상 마음이 편하다. (모리, 49)

(28a)의 ‘dress’는 (28b)에서 ‘옷을 입다’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무게를 달다’로 번역된 또 다른 동사 ‘weigh’와 함께 제1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유형의 번역임에도 명사인 ‘옷’과 ‘무게’를 ‘여왕이 옷 중’이나 ‘영수가 무게 중’이라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서술명사가 아니며, 동사인 ‘입다’와 ‘달다’의 의미가 중요하다. (29a)의 동사는 ‘relax’이며, 이는 ‘마음이 편하다’로 번역되어 제2유형의 번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일한 제2유형으로 번역된 다른 동사는 ‘smoke’와 ‘pack’으로 각각 ‘담배를 피우다’, ‘짐을 챙기다’로 옮겨졌으며, 여기에서의 명사 ‘담배’와 ‘짐’ 또한 서술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결합형의 명사가 순수한 한국어인 위 5개의 동사는 제1유형 2개와 제2유형 3개로 일관적인 번역유형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제2유형의 특징을 동일하게 가진다. (28b)의 ‘입다’나 (29b)의 ‘편하다’처럼 한국어 동사가 가지는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옷’과 ‘마음’이라는 명사가 각각 삽입되거나, ‘무게를 달다’와 같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동사만으로도 목적어 명사를 짐작할 수 있다.

3.5.3 새로이 생겨나거나 발생하는 현상

18개 중 4개의 동사(6%)는 모두 제1유형의 번역으로 구분되며, 의미적으로 동일한 부류의 영어동사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한국어 번역에서 문맥적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30) a. He smelled faintly sour, [...]. (Morrie, 28)

b. 선생님에게선 [...] 시큼한 냄새가 났다. (모리, 46)

(31) a. The skin [...] was dotted with age spots, [...]. (Morrie, 35)

b. [...] 피부에 수많은 점들이 나 있었고, [...]. (모리, 55)

(30a)의 ‘smell’과 (31a)의 ‘dot’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동사이며, 그 외 두 개의 동사인 ‘taste’와 ‘shine’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은 문맥에 의해 ‘냄새가 나다’, ‘점이 나다’, ‘맛이 나다’, ‘빛을 발하다’로 각각 번역되었으며, 마지막 ‘빛을 발하다’를 ‘빛이 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들 영어 동사의 주된 의미가 한국어의 명사로 전이되었으므로 모두 제1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제1유형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30b)의 ‘냄새’를 ‘진아는 냄새 중’이라 쓸 수 없고 (31b)의 ‘점’을 ‘진아는 점 중’이라 쓸 수 없으며, ‘맛’과 ‘빛’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어 명사들은 서술명사가 아니다. 또한 앞선 제1유형의 한국어 동사들은 서술명사를 뒷받침하는 경동사의 역할에 그친 반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동사 ‘나다’와 ‘발하다’가 명사에 발생하는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의 명사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제1유형으로 번역되었지만 제2유형의 번역이 가지는 특성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어휘공백으로 인해 ‘명사+동사’ 결합형을 띄는 영어 동사의 의미 유형을 분류해보고, 그 유형별 번역 특성을 논의해 보았다. 영어 동사 의미 부류는 ‘생리현상’, ‘몸동작 및 얼굴표정’, ‘언어 및 소리’, ‘도구사용’, ‘기타’의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기타’는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지만 동사의 의미별 구분이 가능하지는 않았다. 또한 번역 형태별로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하였다.

표1. 어휘공백을 가지는 영어동사

의미부류		생리현상	몸동작 /얼굴 표정	언어 및 소리	도구사 용	기타	계
번 역 유 형	제1유형	9	9	6	2	15	41 (60%)
	제2유형	8	13	4	-	3	28 (40%)
계		17 (25%)	22 (32%)	10 (14%)	2 (3%)	18 (26%)	69 (100%)

‘몸동작 및 얼굴표정’으로 분류되는 32%의 동사가 어휘공백에 의해 한국어의 ‘명사+동사’ 결합형으로 번역된 영어동사 중 가장 높은 의미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를 제외하면 ‘생리현상’이 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언어 및 소리’가 14%, ‘도구사용’이 3%를 차지했다. 또한 번역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제1유형은 60%, 제2유형은 40%로 제1유형이 1.5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미부류 중 ‘생리현상’과 ‘몸동작 및 얼굴표정’을 ‘신체의 자발적·비자발

적 움직임'으로 함께 묶을 수 있으며 '언어 및 소리' 또한 '신체 부위를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 의미부류를 모두 '신체 활동'이라는 큰 의미부류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1유형은 24개, 제2유형은 25개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나아가 이러한 통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영어 학습 중 영작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다. 'cough'를 자연스럽게 '기침을 하다'로 번역하듯이, 학습자들은 어휘공백을 가진 영어 동사를 한국어로 옮기기 위해서 큰 어려움 없이 '명사+동사' 결합 형태를 사용한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어 '명사+동사' 결합 형태인 '야유를 보내다'를 영작하고자 할 경우, 초기 학습자들이 사전에서 '야유'와 '보내다'를 따로 찾아서 'send boo'라 영작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영작하고자 하는 것이 신체 활동과 관련된 명사와 동사의 결합일 때에는, 이를 각각 사전에서 모두 찾아 문법에 맞추어 결합시킨 영작을 하기 이전에 한국어 '명사+동사' 중 명사가 서술명사인지를 일단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만약 '기지개를 켜다', '미소를 짓다' 등 서술명사로 판단되는 신체활동 명사와 그 연어로 사용되는 동사의 결합일 경우, '기지개', '미소' 등의 서술명사가 바로 영어 동사 'stretch'와 'smile'이며, 뒤의 '켜다'나 '보내다'를 또 다른 동사로 옮겨 오역의 위험을 키울 필요가 없음을 3장에서 제1유형의 특성을 통해 파악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숨을 들이쉬다'나 '침을 삼키다'에서 '숨'과 '침'처럼 명사가 서술명사가 아닐 경우, 뒤의 동사 '들이쉬다'와 '삼키다'가 바로 영어동사 'inhale'과 'swallow'가 되기 때문에 문맥상 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명사들까지 영작하여 'inhale breath'나 'swallow saliva'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없음도 제2유형의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동사들도 존재하겠지만, 연구대상인 영어동사 중 71%에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명사+동사'

결합형의 한국어 번역이 발견되었으며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구분되는 번역특성이 일관적이라면, 영작 교육이나 학습에 적용시켰을 때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IV. 결론

어휘 공백을 가지는 영어 동사가 ‘명사+동사’ 형태의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그 양상을 문학작품에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하여 크게 의미별 부류와 번역유형별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의미 부류는 생리현상(25%), 몸동작 및 얼굴표정(32%), 언어 및 소리(14%), 도구사용(3%) 및 기타(26%)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 특히 신체를 사용한 동작이나 행위(생리현상, 몸동작 및 얼굴표정, 언어 및 소리)를 종합해 보았을 때 71%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번역유형은 제1유형 41개와 제2유형 28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분석에 포함된 69개 자료 중 각각 60%와 40%를 차지한다. 제1유형으로 번역된 한국어 명사는 대부분이 서술명사이며 뒤를 잇는 동사는 경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영어 동사어휘가 동시에 명사어휘로 쓰이는 품사 전환(conversion)의 많은 경우, 그것이 한국어의 명사부로 번역됨을 볼 수 있었다. 제2유형에서는 한국어의 동사가 영어 명사의 주된 의미를 가지며, 명사는 서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동사의 대상이 되어 전체 결합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동사의 전체 어휘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범주가 협소한 측면이 있으며, 유사장르 텍스트들에서 추출한 자료 분석의 결과라 신체 활동과 같은 특정 의미 부류의 어휘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텍스트 종류와 문맥에 의한 주어의 유생성과 관련된 번역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장르의 텍스트를 분석할 경

우 영어 동사의 의미 부류와 관련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텍스트에 관한 비교 분석이 후속된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일한 레벨의 단어와 번역을 비교할 경우 보다 명쾌한 학술적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음을 생각해볼 때,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어휘의 온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의미라도 ‘urinate’와 같은 전문용어와 ‘pee’와 같은 일반어휘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동일하게 서술명사를 가지는 ‘소변을 보다’로 번역될 수도 있으며 서술명사가 아닌 ‘오줌을 누다’로도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한국어에서도 한자어 어휘와 한국어 어휘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담배를 피우다’와 ‘흡연을 하다’는 동일한 영어단어 ‘smoke’에서 번역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전자인 한국어 어휘 ‘담배’는 서술명사라 볼 수 없는 비격식 어휘인 반면 ‘흡연’은 서술명사이자 더 격식 있는 어휘이다. 이렇듯 어휘 레벨의 차이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어의 사회적 쓰임은 차후 연구에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범모. 2000. 술어 명사의 의미 구조. 「언어학」 31: 3-29.
- 고광주. 2002. ‘명사+동사’형 합성동사의 형성 원리. 「우리어문연구」 19: 253-278.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은일. 2015. 언어유형론 및 어휘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한 번역에 나타난 수동태의 변조. 「현대문법연구」 83: 61-79.
- 남명애. 2013. 「한국어 동작성 서술 명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규. 2005. 술어명사의 문법적 특성. 「형태론」 7-1: 61-79.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3: 409-476.
- 한영균. 1997. ‘명사+동사’ 합성구의 형태론적 특성: <동사 합성구 사전>의 거시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울산어문논집」 12: 95-123.
- 홍재성. 1999.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어휘적 접근. 「인문논총」 41: 135-173.
- Chae, H-R. 1997. Verbal Nouns and Light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3-4: 581-600.
- Hale, K and Keyser, J. 1991. On the Syntax of Argument Structure. ms., MIT.
- Jespersen, O. 1954.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IV*. New York: Barnes and Noble.